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봄

2016 Vol. 5
www.ice.go.kr

교육이슈

점수? 이제는 역량이다!
우리 아이, 교과 학습 평가는?

놀이밥

놀이로 시작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제대로 놀기. 나부터! 또는 나라도

진학 TIP

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입학 진학 정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수백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염려와 관심을 배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아누슈 코르작-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0만 가지 모습으로 모두 다르게 성장하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학교 만들어요!

등곳길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교문을 지키던 선도부 대신 귀여운 곰돌이가 나타났습니다.
책가방에 짓눌린 어깨를 다독이고, 추위에 언 몸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행복한 등곳길은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사진설명 : 서운고등학교 학생회가 주관하는 아침 등곳길
• 사진 : 교육홍보팀 서 주 희



Contents 봄 2016 Vol. 5

04-09	교육이슈	점수? 이제는 역량이다! 우리 아이, 교과 학습 평가는?
10-13	놀이밥	놀이로 시작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제대로 놀기. 나부터! 또는 나라도!
14-17	마음 자람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기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과정
18-23	행복배움	2016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모두가 함께하는 남구온마을교육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으로 주민참여와 교육자치 연대 실현 학년교육과정,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준비하기
26-27	School TOON	학교그리기
28-29	오늘 당신이 주인공	걱정은 지우고 응원만 보냅니다!
30-31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	따뜻한 봄날에 황어장터 3.1운동 기념관을 찾아보다
32-35	교육대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인천교육연수원 특별 대담
36-37	진학 TIP	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입학 진학 정보
38	교육 노트	‘19금’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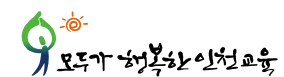
12



20



28



발행일 • 2016년 3월 31일 |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편집인 • 오태환, 김진철, 여석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전화 • 032)420-8226
편집디자인 • 웨스트코(주) 032) 423-1988 | 인쇄 • 삼우인쇄 032) 818-0666 | 발간등록번호 •
인천교육 2016-0026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수? 이제는 역량이다!

● 시교육청 대변인 김 진 철

자전거 타기의 기억

누구나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핸들을 부여잡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길 수차례. 그러다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질주하던 짜릿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몸의 기억만으로 우리는 평생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전거 타기를 이렇게 배운다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 능력을 균형감, 근력, 용기로 나누고 반복 훈련을 한다면 말이지. 또 ‘자전거의 구조와 주행 방법’이란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을 봐서 점수와 등급을 나눈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이것이 ‘자전거 타기’의 객관적인 능력이라고 간주한다면 말이지. 교과지식 중심의 수업과 일제히 시험을 치르는 전형적인 주입식 학교교육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지식에서 역량으로

주입식 교육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늘 ‘현실’이라는 벽이 더 강했습니다. 지식으로 시험보고, 경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고한 ‘현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학교에서 ‘학력’은 교과 지식의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2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정해진 자리(직위)에서, 정해진 절차와 지식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수행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얼마나 아는가’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가’를 요구합니다. 교과서로 배우는 사실적(명제적)지식의 상당부분은 ‘검색’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여 서로 섞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삶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가는 능력도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 학력(능력)의 개념도 변화합니다.

이 새로운 능력을 OECD는 ‘핵심역량’(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범주	역량
다양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역량	인간관계능력, 협동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자율적인 행동 역량	조직 내의 협력적·자율적 행동능력, 인생계획 및 프로젝트 구상·실행 능력, 자신의 권리 및 필요의 옹호·주장 능력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활용 역량	언어·상징·텍스트 등의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상호작용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

‘핵심역량’이 제기된 후 많은 나라에서 2000년대부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부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능력(ability)이 아니라 역량(competency)이란 표현을 쓸까요?

앞서 자전거 타기에 다시 비유해봅시다. 균형감, 근력, 용기가 개별적인 능력이나 태도라면 역량은 실제 자전거를 타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발휘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량’은 최근 강조되는 ‘융합’, ‘통섭’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도 변화합니다. “교과서를 벗어나 교과 간 통합을 이루어 학생이 실제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동네 재래시장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여 장보기, 재래시장 홍보물 만들기, 시장 안내도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이 수업은 수학, 사회, 미술, 국어가 통합되어 셈하기, 꾸미기, 글쓰기, 경제 알기, 지역사회 알기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평가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고등학교 축제에서 공연될 뮤지컬 수업을 합니다. 이야기 구성, 작곡·작사, 노래, 연기, 연출, 무대 설치를 학생들의 힘으로 한 학기 내내 진행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정규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국어, 음악, 미술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질문, 소통, 기획,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수업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인천 혁신학교)’는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의 변화에 따라 역량중심 교육을 앞서 실현하는 혁신학교에 대해 혹자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바라본 오해이거나, 기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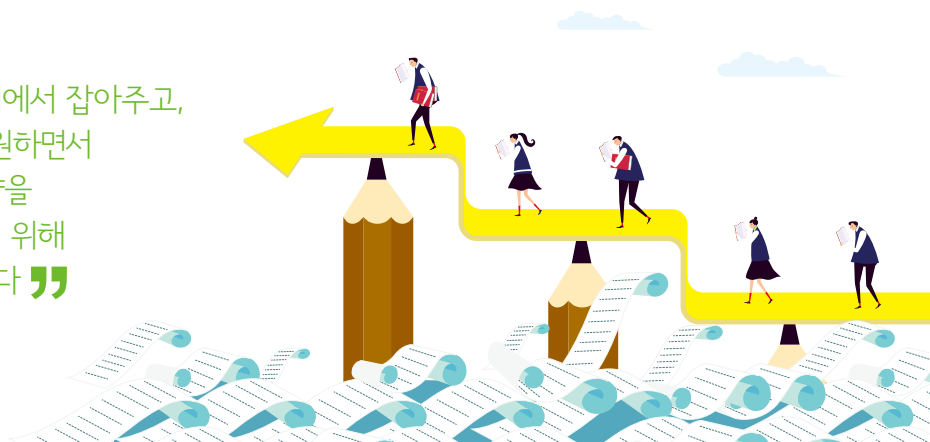


경쟁에서 협력으로

핵심역량 중에서도 ‘협동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 수준으로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량들이 합쳐져 상승효과를 내는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협동 역량(경청, 협업, 상호작용)은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입니다(‘2010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고질적인 경쟁교육 체제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함께 가기보다 앞서가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제로섬 경쟁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협동 역량입니다. 창의성은 협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협동 역량은 ‘인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인천의 학교는 뒤에서 잡아주고, 함께 달리며, 응원하면서 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절, 배려, 경청은 낯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경쟁교육을 그대로 두고 인성을 강조할 일이 아니라, 협력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협력은 교육 그 자체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배움의 공동체, 비교초기 교육학, 거꾸로 수업, 협동학습들은 하나같이 ‘학생참여’, ‘대화’, ‘협력’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그 이유는 상호 협력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에서 성장으로

진학전문가이자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최근 대입전형의 대세가 “학생의 점수보다 역량을 보고 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학력고사→수능→논술→입학사정관제’로 변해 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동기와 지향, 능력, 학교 활동을 종합하여 ‘역량’을 폭넓게 평가하기 위한 대입 전형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50% 이상이며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험 점수 몇 점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범 씨는 역량과 시험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초등, 중학생 시기에)문제를 계속 풀고, 시험을 자주 본다고 아이들이 성장하진 않아요.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는지 재보기 위해 계속 물을 넣었다 뺐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릇을 더 크게 만들까 고민해야

합니다.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창의공감교육’, ‘미래형학력신장’이 바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인천교육

인천의 학교들은 역량 중심 교육의 물꼬를 열고 있습니다. ‘배움중심 수업’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다채로운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일제형 시험 대신 다양한 학습활동 과정 속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합니다. 고등학교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얻은 학업역량과 진로 중심 교육활동에서 얻은 성장 기록을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아 대학 진학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에 1974명의 인천지역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입학비율로만 보면 전국 상위권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순항 중인 것입니다. 첫 자전거 타기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혼자 힘으로 페달을 밟아나가기 전까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서 함께 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놓은 손으로 응원의 박수를 쳐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학교는 뒤에서 잡아주고, 함께 달리며, 응원하면서 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실, 모두가 성장하는 교실이 인천 교육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 교과 학습 평가는?

교육혁신과 교육과정팀

인천시교육청은 성장과 학습을 돕는
방향으로 학생 평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배경을 문답의 형식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초등학교



- Q** 초등학교에서 교과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니까?
- A** 각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면서 학습을 개선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실시합니다. 단원 수업 시간 중에 관찰평가, 실험실습, 토론, 발표, 자기평가, 친구끼리 상호평가, 글쓰기(서술·논술), 학습과제묵음(포트폴리오) 확인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합니다.
- 즉 수행 평가를 더욱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도 평가와 일치되도록 성취기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 Q** 별도의 일제식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점수로 공개·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중간·기말 정기시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통지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성적을 비교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배우는 과정보다 점수라는 결과에 얽매어 공부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교사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입식,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교육과정 총론)’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최근 교육 흐름과 일치하는 동시에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통해 성장과 학습을 돕는 방향으로 교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Q**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험 성적이 중요한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 A** 중학교는 석차 없는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시험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에는 중간·기말 시험이 없습니다. 대입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교내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취기준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업 중 평가는 상급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 Q** 교과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 A**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에 친구들과 협력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시험 점수로 아이의 서열을 가늠하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수업 집중력, 꾸준한 독서와 운동,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다양한 수업 활동에 필요한 협동능력과 규범을 지키는 태도를 기르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 Q** 성취평가제란 무엇입니까?
- A** 2012년부터 도입된 중등의 성취평가제는 ‘누가 더 잘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각 교과 별로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성취기준’이라고 하며, 성취기준에 도달 정도에 따라 90% 이상은 A(매우 우수), 80%이상~90%미만은 B(우수), 70%이상~80%미만은 C(보통), 60%이상~70%미만은 D(다소 미흡), 60% 미만은 E(미흡)으로 구분합니다. 선택교과(정보, 한문, 생활외국어)는 성취도를 A,B,C 3단계로 나누고, 진로와 직업 등의 교양교과는 이수했을 경우 P로 기재합니다.
- Q** 앞으로 중학교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니까?
- A**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에 의한 평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평가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은 교과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수업 내용을 넘어선 평가, 평가 획일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중학교에서 수행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나요?
- A** 앞서 말씀드린 학습과정 중심, 핵심역량 중심, 개별 중심 평가를 위해서 수행평가를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것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인천의 중학교 수행평가 비율은 ‘자유학기제’ 중에는 100%, 자유학기제 직전 학기는 50% 이상, 일반 학기 중에는 40% 이상을 실시하며, 학교와 교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사례

수행평가	내용	언어기능	차시	활동방법
프로젝트1	We are curious to know - 연구질문 만들고 답하기	쓰기	1-3단원 학습 후	개별, 모둠
프로젝트2	What should i do - 고민 공유하고 고민 해결 편지 쓰기	쓰기, 말하기	4-5단원 학습 후	모둠
프로젝트3	My Dream - 꿈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고 꿈에 대한 글쓰기	쓰기	6-7단원 학습 후	개별
최종 프로젝트	Introducing our newspaper - 학습 신문 완성하고 발표하기	말하기	학기말	개별, 모둠

놀이로 시작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 학익초등학교 교사 **김우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칭찬이나 꾸중하는 말은 어떤 게 있니?” 아이들의 대답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잘했어.” “착하네.” 꾸중하는 말은 “휴대폰 좀 그만 해라.” “정리 좀 해라.” “일찍 좀 자라.” 칭찬하는 말보다 꾸중하는 말이 훨씬 구체적이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단점을 표현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단점을 많이 지적한다고 해서 단점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단점을 더 많이 가진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닌 다른 말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교실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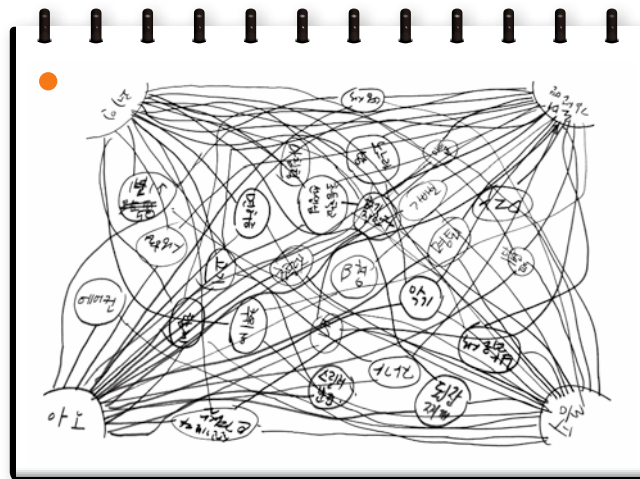
공통점 네트워크 (모둠, 실내)

놀이방법

- 종이 주변에 앉아 한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 3분의 시간을 주고 아이들은 공통점 찾기를 시작합니다.
 - 서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고 놀이판 한 가운데에 공통점을 씁니다.
- 예) 혈액형, 좋아하는 음식, 친한 친구, 좋아하는 가수 등
- 공통점을 가진 친구는 자기 이름부터 공통점까지 선으로 연결합니다.
 - 충분히 공통점을 찾은 후에 모둠별로 발표하고 교실 한쪽에 전시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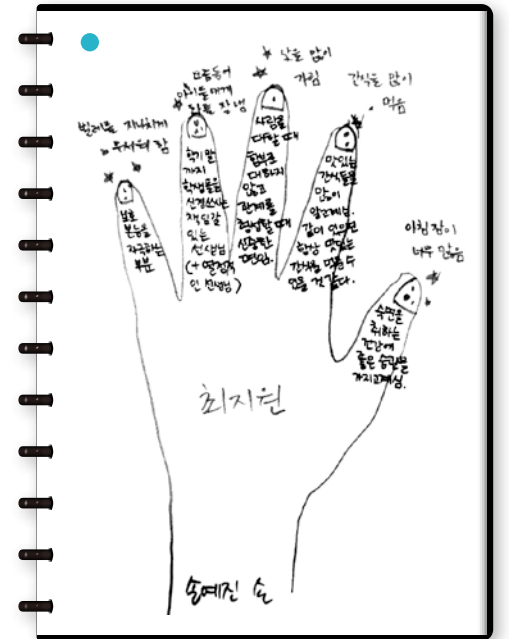
-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각자 다른 색연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 발표를 할 때에는 한 모둠이 발표하고, 나머지 모둠은 발표를 들으며 자신들도 적은 공통점을 함께 지워갑니다. 그렇게 모든 모둠이 발표하며 우리 반의 공통점 가짓수를 늘려갑니다. 경쟁보다는 우리 반의 공통점 가짓수를 많이 발견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면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장점 단점 손바닥 (짝,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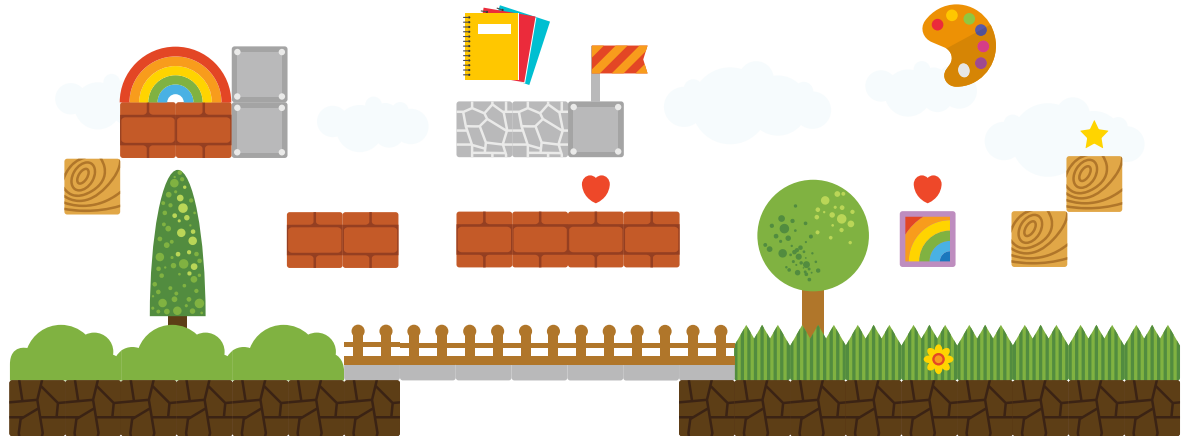
놀이방법

- 상대방의 손을 종이에 대고 그려줍니다.
 - 내 이름을 적고 다섯 손가락 바깥 부분에 단점 5가지를 적습니다.
 - 짝과 바꾸어 단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손 안쪽에 적어줍니다.
- 예) 장난을 많이 친다. →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공부를 못 한다. → 공부보다 더 행복한 것을 찾았다.
- 단점을 바꿔 쓰기 어려우면, 장점을 찾아 적어줍니다.
 - 종이를 돌려받아 읽습니다.
 - 손 모양만 오래내어 자신의 단점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해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 학기 초 교실 한쪽에 전시해주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지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활동을 학부모 총회나 상담 때 해봅시다. 부모가 자기 아이의 단점을 적어보고, 다른 학부모가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봅시다. 자기 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개팅을 하게 되면 서로 질문이 많아집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공통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새 학년 교실에는 찰기 없는 밥알처럼 아이들이 따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고, 공통점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조금씩 찰기가 더해집니다. 그렇게 공통점을 나눈 아이들은 곧 한 공기 밥처럼 붙어 다닙니다.

제대로 놀기. 나부터! 또는 나라도!

● 광성고등학교 교사 **백인식**



여가를 잃어버린 삭막한 삶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하듯이 공부를 하면 대학은 열 번도 더 가겠다."

대부분 부모는 게임을 모른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런 질책이 당연해 보인다. 자녀가 이렇게 반문하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할까? "엄마.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이야기 들어 봤지?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디오 게임 도사였던 것 알아? 얼마나 게임을 잘했는지 17살에 무지 유명한 게임을 개발했다. 그 사람 엄마도 엄마처럼 게임 좀 그만 하라고 말했을까?" 청소년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재미'때문 이 아닐까 싶다. 재미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열광하지 않을 것이다. 게임은 잘하든 못하든 잠시나마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공간이 주어진다. 노력한 만큼 성취욕 구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앞섰다는 우월감도 주어지니 한번 맛을 보면 여간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놀이 이론에서는 자아 발견, 지속성, 공동체감 형성, 신체 발달, 감수성 개발 등의 요소를 갖춰야 좋은 놀이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 게임은 좋은 놀이가 아니다. 게임이라고는 애니팡의 경험이 고작인 어른의 처지에서라면 나쁜 놀이가 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자기가 모르는 세계는 모두 나쁜 존재라고 고집하는 일은 고루해 보인다. 세상은 변했다. 컴퓨터 게임도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는 시대,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게임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누가 게임만 하게 만드는가? 나는 우리 사회라고 생각한다. 놀이, 취미·여가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여건, 시설과 지원은 '게임만 하지 마!'라는 어른들의 염려 또는 충고를 잔소리로 만들어 버린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상가(喪家)에 가면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선생님을 만나거나 소식이라도 듣게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서인지 색다른 활동을 하는 분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어느 분이 산악회 뒤편이에서 술값을 자주 냈더니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좋아지더라는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 뒤편은 씁쓸했다. 몇 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꾼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삶'이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취미·여가 활동, 즉 지속적인 놀이는 행복한 저녁의 필요조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척도 역시 바닥을 웃돈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여겨야 하는 판국이니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더욱 슬퍼 보인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는 옛사람들이 전해 준 지혜를 잊고 산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데 어려서 제대로 놀지 못하다가 나이 들어 갑자기 제대로 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취미·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할 게 없어 심심하다는 소리를 하는 퇴직 선생의 모습은 방학 때 '놀면 뭐해, 보충 수업해서 용돈이라도 버는 게 낫지!'라고 말하는 교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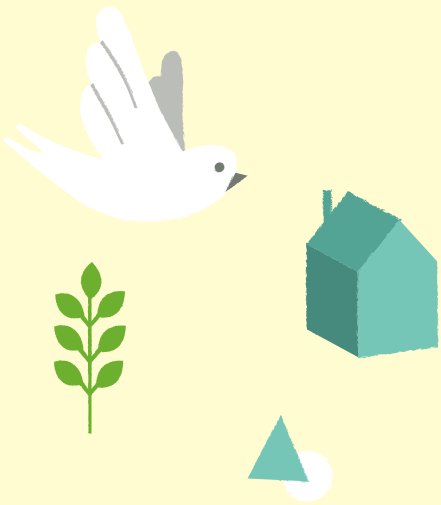


달라지고 싶다면 무엇이든 시작하자

삶을 운택하게 하는 취미·여가 활동, 놀이 문화의 문제도 닮아 먼저나 달갈이 먼저나 같다. 사회가 개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놀이를 마다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이마저도 우리 현실에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시작할까? 무심히 잊고 지내는, 온갖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부러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 천재들이 창조한 음악이나 그림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거의 무한정 즐길 수 있다. 장인의 혼과 정성, 보통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배인 물건이나 음식, 장소는 아름답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은 즐길 마음만 있으면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아름다움은 감성과 눈을 열어주고, 딱딱한 일상의 벽에 틈을 낸다. 뭔가 해 볼 생각이 들게 만든다.

뭔가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구글 신'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OOO 배우는 방법'을 입력하고, 약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결심이 끝나면 길이 열린다. 일단 질러놓고 보면 지속과 발전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웬만한 악기의 경우 3개월 학습 과정이면 간단한 노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다. 즐기기를 위한 그림 강습도 많다. 사진, 목공, 조립, 수집, 감상, 공연, 연주. 그 종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무언가를 좋아해서 실천하게 되면,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학생은 내용보다도 형식으로 더 많이 배운다고 한다. 그들은 어른과 교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다. '향을 썬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썬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게임 좀 그만해!', 어른은 말하기 싫고 청소년은 듣기 싫다. 제대로 놀기, '나부터!' 또는 '나라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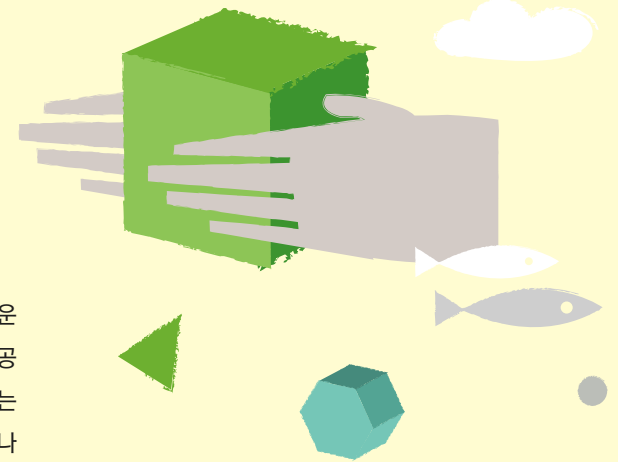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기

● 임학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승수

상담 관련 기관의 홍보물에서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어떤 고민도 이야기만 하면 다 해결해주는 걸까. 어떤 상태를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상담자에게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예도 있다. 상담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사람마다 상담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하연(가명)이도 그런 학생 중 하나였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내고, 손이 미끄러우면 불안해서 사프심 같은 걸로 손등에 상처를 낸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자해를 시작해서 심할 때는 하루에 여러 번 하기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다고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담이 여러 번 이어지고 하연이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하연이

는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기에 힘들 때는 혼자 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위로받는 게 좋지만 가식적인 것 같아 찝찝하기도 하다면서 상담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여섯 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해 이따금 집에 들르는 정도이고 자신을 돌보아주는 할아버지 역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하연이의 심리검사 결과 우울지수가 높아 병원치료와 상담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하연이가 그동안 자해를 해온 걸 모르고 계셨는데 손의 상처는 종이를 자르다가 다친 거라고 했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병원치료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한사코 외부기관



연계를 거부하고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기 원하였다. 다행히 하연이도 학교에서 하는 상담은 좋고 하여 상담을 계속해 나갔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힘든 티를 내면 걱정하실 것 같아 괜찮은 척하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많이 힘들 땐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혼자서 운다고 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뎌온 하연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격려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고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이따금 나타나 상담자를 안타깝게 하였고 자해 행위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일반적인 자해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나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화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하연이는 후자에 더 가까운 편이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가족이나 또래와 다툼이 있을 때 자해를 하곤 하였다. 자해를 심리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대처방법이나 불안을 더 강한 자극을 통해 해소하려는 나름의 노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하연이도 자신이 자해 하는 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자해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자신은 먼 지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하연이에게 자해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상담이 20회기에 가까워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연이의 자해 행동은 많이 줄었지만 대신 이따금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보이곤 하였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삶은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나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하지만 “상담 초기에는 자신의 문제가 결점이나 실패가 아닌 운명적으로 결정된 우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고 이후에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인정한다”는 상담 서적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여중생에게 버거운 과제였을지도 모르겠다. 미성년 내담자의 보호자가 외부의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상담자는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내담자의 상태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고 내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1년 동안 상담을 이어가면서 굴곡은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고 3학년이 되어서는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여 간헐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근황을 묻고 힘들 때는 언제든 찾아오도록 당부하곤 하였다. 5월 스승의 날 하연이는 혼자 오기 쑥스러웠는지 친구를 데리고 상담실을 찾아와 큰절을 하고 돌아갔다. 겨울이 지날 무렵 졸업식 날 상담실을 찾아왔을 때 나는 하연이에게 “가진 가장 큰 자원은 하연이 자신”이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해주었다.

몇 년이 지나 그때를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니 하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진다. 돌아보면 하연이가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할 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더라면 어땠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자에게 병원 치료를 설득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하연이에게 좀 더 나은 상담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매일같이 만나는 학생들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글을 맺으면서 상담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상담자는 검사보다는 변호사처럼 질문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은 있기 마련이고 어린 학생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상담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좌절을 견디고 성장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이니까. 하연이에게 완전한 봄날이 올 때까지 온 마음으로 함께해 줄 누군가를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과정

신흥중학교 교사 안보경



제가 전입 온 2012학년도 우리 학교는 상벌점제가 없는 학교로 생활지도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벌점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2013학년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동의를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학년도에 생활지도부를 회복적 생활교육부로 변경하며 부장을 맡은 저도 ‘회복적’은 ‘응보적’과는 달라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를 하려니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업 중 학생들 생활지도가 너무 어려워, 당시 처음 시작한 학생자치회 통해 수업협약 및 성찰실을 만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수업협약과 성찰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두 달간의 학급자치회 학생회 대의원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성찰실에 갈 때 학부모에게 통보된다는 것, 그리고 방과 후 1시간을 남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걸렸을 때 오히려 하지 않았더라며 발뺌하거나, 다른 친구들도 했이라며 물고 늘어지거나, 극한 경우 도망을 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찰실 실천이 힘들게 반복되면서 초창기에 학년별로 관리 감독하여 실천하던 방식에서 2014학년도에는 개별 선생님이 스스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교사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선생님의 실천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고, 때문에 2014학년도 수업에서 여전히 생활지도가 되지 않아 힘든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2015학년도가 되어 선생님들께서는 지난번과 같은 수업협약이 아닌 수업존중약속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존중약속을 학급자치회뿐 아니라, 학년별로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형식의 동의 과정을 거쳐 학생의 의견을 최대로 듣고 실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타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고, 타임아웃의 횟수가 많을 경우 학부모와 함께 돕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한 학생을 관리할 교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돌려주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의 수업존중약속은 2013학년도의 수업협약보다 생활교육으로의 학교 문화 변화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2013학년의 수업협약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3개였으나 교사가 지켜야 할 약속은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1개의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생활지도에서처럼 교사가 주도하여 학생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개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수평적 교육임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학년도의 빠른 성찰실 실패를 바탕으로, 2015학년도의 수업존중약속은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가 지켜야 할 3개의 약속이 수평적으로 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학년별 공청회를 통해 함께 정했으므로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동의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2015학년도 12월 국어과에서 학생들에게 논술대회 주제로 ‘우리학교에 등교지도가 필요한가요?’를 물었습니다. “등교지도가 필요하다. 이유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3학년 93%, 2학년 88%, 1학년 75%가 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은 충분히 존중받고 있으나 자발적 책임을 잘 배우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조직이 아닌 공동체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자발적인 책임을 근간으로 변화되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자율규정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즉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약속이나 교칙을 어겼을 때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이를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로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단계로 구성된 훈육과 훈계 및 자발적 책임의 내용입니다. 동의된 수업 존중의 약속 또는 교칙을 어겼을 경우 2014학년도처럼 교칙에 의해 바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 1단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시 반복되었을 경우에 학교 공동체가 합의하여 만든 자발적 책임의 방법 중 하나를 학생이 선택하여 실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또 다시 반복했을 경우 관련교사 및 학부모, 학생이 모두 모여 회복적 서클을 실천하여 공동체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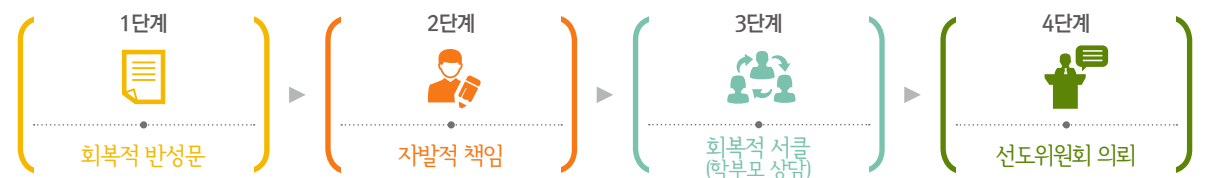
이상의 3단계를 실천하였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이 재발되었을 경우 선도 사안으로 지원합니다.

2016학년도 우리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성장수첩을 통해 자발적 책임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론 실천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2013년부터 그러했듯이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묻고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수평적 생활교육으로 관계성 향상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서로가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 동의와 문화가 성숙되기까지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면을 통해 꼭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담당자 조차 시행착오가 많았던 생활교육의 실천을 위해 늘 신뢰와 인내, 많은 연수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정성을 다해 노력해 오신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3단계로 구성된 훈육과 훈계 및 자발적 책임의 내용



2016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모두가 함께하는 남구온마을교육!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으로 주민참여와 교육자치 연대 실현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박 광 노**

2015년 한 해는 남부교육지원청에 뜻 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남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협력과 발달의 교육을,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교육을 펼친 것과 아울러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남구교육에 관한 기대와 관심을 확대하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015 남구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탁토론을 개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에 원탁토론 문화를 선도적으로 보급하였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학교문화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남구와 학교

간 시너지가 발휘되었고, 학교를 넘나드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천하여 교육자치 실현 및 공교육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남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의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한 아이를 온 마을이 책임진다”는 교육철학이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년째 접어든 남구교육혁신지구는 ‘모두가 함께하는 남구온마을교육’을 슬로건으로 3개 정책 지표, 7개 사업, 9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남구온마을교육’이란 남구의 교육주체(민·관·학) 모두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공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

2016년 남구교육혁신지구의 첫 번째 정책 지표는 공교육혁신입니다. 이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정상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창의·융합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남구 교육혁신지구 교원 전문성 기준(교육과정·수업과 연계한 평가를 실행하는 능력, 민주시민성에 기반을 둔 학교/학급 공동체를 생성·성장시키는 능력,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을 마련하였고, 수업혁신 및 학교혁신을 위한 교원의 동료적 전문적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꿈·끼·감성의 학생동아리 운영, 학생상담지원, 독서·토론·논술 교육 지원 등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진교육협력모델 운영

두 번째 정책 지표는 선진교육협력모델 운영입니다. 이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혁신 역량 강화,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와 마을이 상생의 가치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구온마을교육기반 구축

세 번째 정책 지표는 ‘남구온마을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온마을교육’모델 개발, 남구온마을학교 운영, 남구 특화 프로그램(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찾아가는 구정 교실) 운영, 참부모 연구 모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남구에서는 ‘남구온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4년간 계속될 남구교육혁신지구사업은 첫 해인 201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는 더욱 더 안정화되고, 남구지역에 정착되어 선진화된 교육정책이 펼쳐져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주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육을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해가는 새로운 교육모델입니다. 향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며, ‘학교의 발전을 통한 남구의 발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남구 학생들이 남구에 자긍심을 갖고 미래 핵심역량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남구청, 학부모님들이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마이클 애플의 말처럼 이제는 발코니에서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발코니에서 내려와 현실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인천남구교육혁신지구에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요!

학년교육과정,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준비하기

서흥초등학교 교사 **심준희**

2016년 2월 22일, 인천서흥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 생활 30년차에 접어든 학년부장선생님, 뒤늦게 교대에 입학해 나이는 어디서 뒤쳐지지 않지만 교사생활 5년차에 불과해 좌충우돌하는 선생님, 잡무에서 벗어나 행복배움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만 하고 싶었던 5년차의 선생님, 2월에 발령 받은 신규 선생님, 아무런 수식어도 필요 없는 3월 발령의 새내기 선생님! 각양각색의 얼굴을 한 담임선생님 다섯 분과 음악전담 선생님, 특수교육 선생님. 총 일곱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올 한 해를 멋있게 살아보겠노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학년 교육과정을 주제통합으로 구성해 보자

각양각색의 모습만큼이나 서로가 가진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길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학년부장선생님은 그간의 오랜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급히 먹으면 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학기 당 한 두 개의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의 바탕에는 선생님들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늦깎이 선생님은 작년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작년은 실험하는 단계였으니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지만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 진짜 교육을 펼치고 싶었던 5년차 선생님은 아이들의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다른 선생님들과 구성하고 싶어 이 학교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학년부장 선생님도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지며 “그럼 한 학기 과정이라도 모두 주제통합을 해볼까? 힘들면 난 책임 못 져!”라고 말씀하시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이것만으로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과목별로 비슷한 내용을 찾아내고 이를 공통의 주제로 묶다

혹시 무엇이 빠졌는지 눈치 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신규 선생님 두 분이 빠졌습니다. 신입 선생님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지가만히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말고 씩씩하게 버티는 것이 신규의 몫이겠조? 그런데 늦깎이 선생님은 보았답니다. 두 신규의 얼굴에 번지는 어두운 기운을.

2월 22일 학급 긍정 훈육법에 관한 연수를 마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지도서를 꺼내들고 내용요소와 핵심 성취기준, 그리고 관계되는 핵심역량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상징, 포스트잇과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분절적 요소가 강한 수학, 과학, 영어는 각각의 진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되 사회, 도덕, 국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의 7개 과목은 가능하면 같은 주제로 묶어내기 위해 내용 요소 간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군요. 이것들을 따로 배우는 것보다 묶어서 함께 공부한다면 학습에 스토리가 생기고 아이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선생님들도 열심히 말이죠.



사진_교육홍보팀 이예슬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거죠?

다음날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신규 선생님 중 한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죠?” 순간 학년 협의실이 조용해지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놓치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의 말에 이어 다른 신규 선생님도 “솔직히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아이들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사에게는 어떠한 면이 좋고 어떠한 면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등 이러한 부분을 거의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재구성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논의의 과정인데 말이죠. 일순 정적에 잠겼던 5학년 선생님들은 모두 지도서와 포스트잇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사에게는 어떠한 면이 좋고 어떠한 면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논의의 과정인데 말이죠.”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다 배우는 것이 아니듯 분절적 교과 속에서 학교교육이 아이들의 삶과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교육과 자신의 삶이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 주제 통합 수업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교과의 수와 교육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등 주제 중심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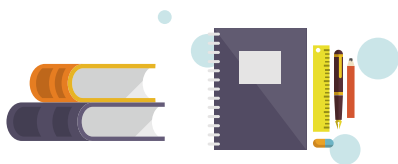
조금 늦은 논의였지만 신규선생님들은 활발히 의견을 펼쳐주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동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후에 신규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삶을 배우고, 삶을 통하여 배우고, 삶을 위하여 배우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결정했던 부분은 바로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삶’에 기반 해야 하고,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5학년 교육과정의 전체 주제는 나의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삶을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위하여 배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기본 생각에서 떠올린 주제이죠.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월별로 연관된 주제들을 설정하고 다시 주별로 소재목을 설정하였습니다.

3월은 나의 삶과 만남, 4월은 나의 삶과 이웃, 5월은 나의 삶과 가족, 6월은 나의 삶과 환경, 7월은 나의 삶과 사회라는 월별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간 및 거리의 확대법을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계기교육적인 측면이 있어 이웃보다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선생님 일곱 분이 한 과목씩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공동의 논의를 거쳐 월별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교과와 내용을 단순히 순서만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질 때,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삶에 기반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월별 주제 전체가 가지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각 시간마다의 내용요소와 활동이 일관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가령 3월 나의 삶과 만남, 소통이라는 주제는 첫째 주 함께 만드는 학급 규칙, 둘째 주 친구들을 존중하는 말하기, 셋째 주, 친구와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 넷째 주, 다함께 킥타 연주의 네 가지 소재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선정된 각각의 차시 내용요소들을 핵심성취기준, 핵심역량 정도만 고려하여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 역시 함께 거쳤습니다. 5학년 3월 교육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선생님들과 함께 거쳐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혹시 읽어보고 어떠셨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좋은 것이지만 나는 힘들어’라고 느끼셨나요? 어떤 반응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꼭 정답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수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든 생각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년 부장선생님께서 혼자서 시수 맞추어 고민하고 문서로 작성하면 주간학습안내 받아두고 교실에서는 내가 알아서 수업하던 모습.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모습 아니신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우리가 해 왔던 모습이었어요. 교실에서 나는 열심히 수업하지만 항상 모자란 것 같고, 그런데 뭐가 모자란지도 잘 모르고, 같이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들과 동료성을 느끼기 힘든, 항상 갈증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는 교육과정, 다른 선생님들과 더불어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교육과정,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장에 대한 갈망을 채워 주었습니다. 성장하는 선생님, 발전하고 싶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 역시 함께 커 나가겠죠?^^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처한 현실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월에 발령받은 신규선생님에게는 직장에서의 적응과 교실에서의 생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함께 다독여가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 과정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5학년 학년 부장님 말씀대로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니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학년 선생님들과 공동의 협의와 노력으로 1학기 과정에 대해 주제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성장해 나간다는 뿌듯함과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틀린 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배우고, 삶을 통해 배우며, 삶을 위해 배우는 교육과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을 위해 인천서흥초등학교 5학년은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곧 학교에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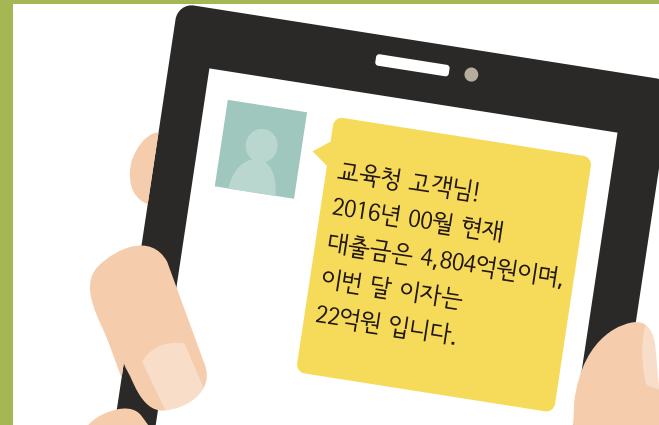
초중고 학교살림을 줄여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교육청 바듯한 살림인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내국세 20.27%)은 그대로
- 인건비 상승(매년 3%)도 버거운 교육청
- 인천 초중고 학교살림 2,400억에 버금가는 무상보육은 2,300억

부족한 돈은 빚으로?



- 무상보육 때문에 교육청 빚은 쌓이고
- 그 빚은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감당해야 할 몫
-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인천교육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무상보육 해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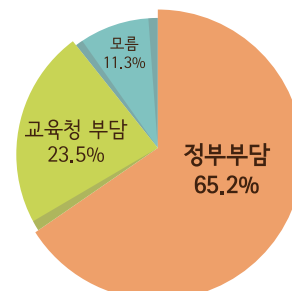
- ✓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 비율 확대 (20.27%→25.27%)
- ✓ 2016년, 2조 국고지원
- ✓ 보육 책임 법령 정비
- ✓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초중고 아이들 교육비 줄여 무상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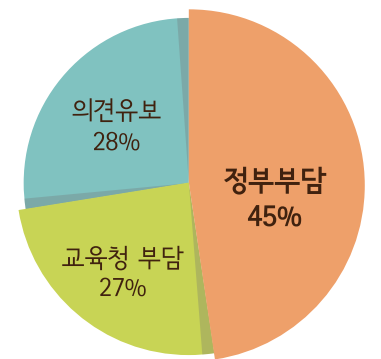
- 이미 인천교육청 사업비 절반삭감 (2012년 2,000억원→2015년 1,000억원)
- 2016년, 학교살림 1,000억원 이상을 또 줄여야 무상보육이 겨우 가능
- 교실 냉난방비 학습준비물부터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누가 부담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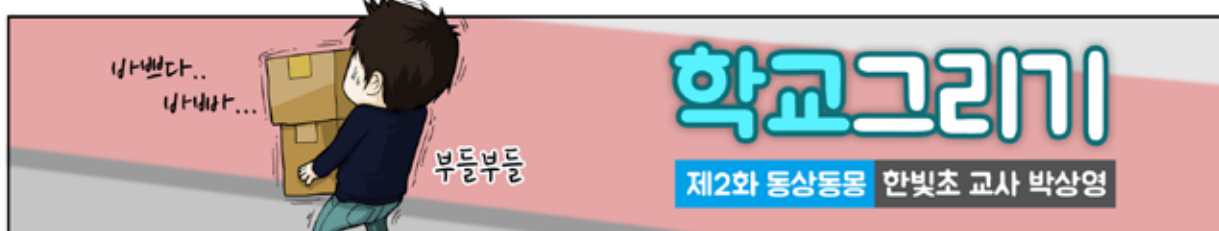


<2016.1.7 리얼미터 조사>

국민의 의견입니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2016.1.29 한국 갤럽>



H A N D P I C K E D

걱정은 지우고 응원만 보냅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걷는 당찬 열아홉 ● 호텔리어 이 송 희

해가 바뀌는 건 1월이지만 학년이 바뀌는 건 3월입니다. 누군가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이는 학년이 올라가거나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졸업생입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는 이송희 씨를 만났습니다.

● 글 교육홍보팀 **어 석 원** ● 사진 교육홍보팀 **이 예 슬**

👉 일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작년 12월에 합격하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선택한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봐야겠네요. 수능을 보기 위해 3년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럴 바에는 특성화고로 가서 내 전공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호텔에서 일하는 꿈을 키우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 중학교 때 이미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꿈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꾸었고요. 결정적인 건 중학교 2학년 때 외국에서의 경험이에요. 호텔에서 홀로 길을 잃어버렸는데 호텔리어가 와서 서툰 한국어로 안내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어요.

그 직원의 도움으로 결국 객실을 찾았죠. 참 멋있다는 생각했어요. 호텔리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호텔의 입사 조건을 보니 외국어를 많이 보기에 1학년 때부터 인터넷 강의로 토익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호텔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외부활동도 많이 했어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를 3년간 꾸준히 나갔고 중학생을 상대로 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도 다녔어요.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배구 종목에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외국어 공부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상에 따른 상대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 지금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특성화고가 아직 예전의 실업계나 전문계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저도 주변에서 날라리냐는 등 무시 아닌 무시를 받았어요. 내가 학교를 선택했는데 왜 내가 기죽어야 하나 생각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린 3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3년 먼저 전공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해요. 사실 대학을 간다 해도 점수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니 후회하며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특성화고를 졸업하며 느낀 점이 있을 텐데요.

“아쉬움이 크진 않아요. 대학가는 친구들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랑스럽게 특성화고 나온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인문계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지만 우린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특성화고도 성적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름 성적관리를 해야 해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특성화고를 말씀드리면 대학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특성화고에도 대학 가는 길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아예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취업한 이후에도 대학진학의 길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 점수에만 얽매이지 않고 폭넓고 쉽게 갈 수 있거든요.”

👉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취업을 한 건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래도 내색은 안하시려고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 봐요. 부모님도 실업계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빨리한 경우라 고졸의 한계도 느끼시고 차별도 받으셨나 봐요. 딸은 그런 차별을 안 받았으면 하세요.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도 많이 말씀해주세요.”

👉 앞으로 꿈이랄까?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일을 하고 3년 뒤에는 대학을 가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서 실무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이 있어요. 특성화고 친구들을 좀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좋은 사례랄까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허황된 꿈이라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청년답지 못하다며 탓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말할 때 얼마나 마음 속 깊이 공감하고 응원해주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응원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황어장터 3.1운동 기념관을 찾아보다

계산여자중학교 교사 **이제은**



중학교 역사 교과 3.1 운동 수업 시간. 3.1 운동 단원을 배우는 날,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닌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했을까?” “그 때가 고종의 국장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웠거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 교사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시작한 것은 실은 모두 너희를 생각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하신 마음 때문이야. 만약에 손자 같은 우리 아이들이 3월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 그래서 기분 좋게 하루는 폭 쉬고 다음 날부터 공부하려고, 너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일부러 3월 1일에 만세를 부른 거야.”

역사 교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금방 우스갯소리인 줄 알아차린다. 그렇다.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3.1절 공휴일을 하루 쉰 다음 시작한다. 보통 중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는 3.1 운동을 1시간 동안 배운다. 요즘은 진도 나가는 게 바빠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까지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므로 3.1 운동의 원인, 과정, 결과, 의의를 짚 설명하며 지나가기 일쑤이다. 게다가 그 숨가쁜 과정에서도 3.1 운동의 상징이 되어 버린 유관순과 제암리 사건까지 빠트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민족운동인 3.1 운동을 이렇게 도식적인 설명만으로 끝내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내 볼 심사로 아이들에게 태극기를 만들어 오게 하여 탑골 공원의 장면이 나올 때 함께 만세를 불러 보기도 하고 그것도 귀찮아하면 교사가 준비한

태극기를 수업 내내 손에 들고 수업을 해 보기도 했다. 혹은 ‘내가 만일 1919년 계산동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동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독립 선언서를 작성’해 보게 하는 수행평가를 내 주기도 해 보았다.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 아이들에게 좀 더 살아있는 수업을 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찾아본 것이 계양구 장기동 소재의 ‘황어장터 3.1운동 기념관’이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역사는 것이 늘 우리와 거리가 먼 중앙(국가)의 역사라고 배웠던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래서 3.1 운동이 유관순 같은 위인들만이 아닌 평범하고 때론 나약해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울에서 3.1 운동이 시작되고 그 불길이 전국으로 퍼진 후에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그 중 가장 큰 규모로 3월 24일, 장날을 이용해 심혁성 주도로 600여 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어난 것이 ‘황어 장터 만세운동’이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심혁성을 비롯한 많은 분이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 받고 투옥되었던,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 한 우리 고장의 산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고장에 있는 ‘황어 장터 만세운동기념관’에 가서 3.1 운동을 배운다면 아이들이 역사라는 것을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실제로 본인이 계양중학교에 근무할 때 매년 3.1운동을 배우고 나면 3학년 학생들을 반별로 인솔하여 ‘황어 장터’에서 야외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출발하기 전에 각자 태극기를 만들어 오게 하여 학교에서 ‘황어장터’까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려가며 이동하였고, 기념관에서는 자료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다. 기념탑 앞에서는 미리 배역을 정해 다수의 시위 군중과 몇몇(주로 자원한 남학생들)이 헌병 경찰이 되어 만세 운동 장면을 재현해 보았다. 이런 퍼포먼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3.1 운동의 의미를 더 느끼고 기억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봄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황어장터’에서 3.1 운동을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광장의 기념탑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왕이나 서울 중심의 역사만이 아닌 작지만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 이야기에도 관심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인천교육연수원 특별 대담

참석자

신흥중 교감	오 현 주
연수운영부장	권 혁 윤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김 경 희
인천도립초 교감	이 용 수
마전중 교사	고 은 경
인천마곡초 교사	최 현 주
인천해밀학교 교사	이 성 숙
부평북초 교사	황 재 인

- 일시 : 2016.2.12.(금)15:00~
- 진행 : 오현주(신흥중 교감)
- 장소 : 인천교육연수원 협의실
- 정리 : 이미희(교육연구사)



많은 사람이 ‘학교교육’의 위기를 말하며 ‘학교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학교변화의 성공은 ‘구성원의 자발성’에서 출발하며, 이어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개념 정리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했다. 고은경은 경기도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교원들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개발하고, 함께 실천하며 교육 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정의했다. 반면 이용수는 수업에만 한정짓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 독서실천, 예술활동 등의 영역이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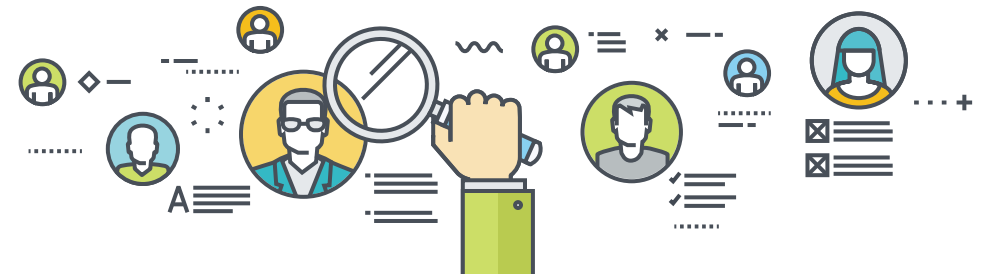
이어진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교원들의 자발성과 동료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교육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공유와 배움으로 전문성을 신장해나가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대담을 이어갔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필요성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이성숙은 “교사의 존재감, 교사의 상처극복은 학교 밖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동료”라며 학교 안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현주는 “학교 변화의 힘은 현장 교사의 자발성에서 비롯된다”며 “혼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교사들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수는 “나 이 지긋한 교사가 버틸 힘은 학교 안의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존재감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이런 공동체는 잃어버린 교사의 열정을 회복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며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수업과 생활교육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과도 맞닿는 것”이라며 학습공동체의 장점을 논했다.

이어 황재인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통한 학교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고은영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실제로 만나 협의할 시간부족을 호소했다. 김경희는 고은영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행정실무사 지원 등 학교 여건 변화 인한 업무경감이 전부는 아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빼기 활동으로 학교 안에서 수업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교직원 스스로 변화의 지점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이어 이성숙, 최현주는 교육철학 등을 공유하며 함께 가는 학교문화 만들기과 교직원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지속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인은 관리자를 비롯한 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갈 리더의 마인드 변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용수는 관리자들의 목표도 학생들의 행복이라며 ‘지구별 자율장학의 운영을 협의하고 피드백하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성숙은 중등의 경우 지나친 교과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학년 단위 동아리 운영을 권장했다. 고은영은 이에 공감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뛰어넘는 주제통합의 통섭 원리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현주는 학습공동체는 동호인 수준을 넘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적 성장을 주목했고 이성숙은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오히려 문제라며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짚었다. 한편 이용수는 주변 학교와 여러 교육 활동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원 학교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
학교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접근할 때 학교교육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성장의 경험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또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학교문화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부족했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이끄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접근할 때 학교교육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성장의 경험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으로 교사의 자존감을 얻는 일, 이제 우리는 그 결단을 요구받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입학 진학 정보

진로진학팀 장학사 **이덕한**

대학입학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설명회에 참가하면 최신의 대학입학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다수가 진학하는 대학을 초청하여 입학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88개 대학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올해는 100여 개 대학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간 설명회 일정은 3월 말 인천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탑재, 가정통신문 및 학교별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3일(토) 인하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수시박람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담당자들과 진학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각종 진학관련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inhak.ice.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면접 및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 등 최신의 검증된 자료가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학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면대면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등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면대면 1:1 대학진학관련 상담은 인천시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마중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월~토 09:00~17:00 시교육청 별관 1층 『진학진로상담센터마중물』에서 인천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각 요일별로 3명이 상주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은 **인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전화 신청(032-420-8475)**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 시 1시간 내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1600-1615)를 활용하여 진로 및 대학 진학에 대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전화를 통해 전국 진학지도 전문교사에게 대입 관련 진로·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1월~7월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월~12월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상담은 진로에 기반을 둔 진학상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전략 및 전형 안내, 학생전형 안내 및 준비방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상담,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등 각종 특별전형 상담 및 학습방법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이버로 진로·진학 상담을 하는 인터넷 상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http://univ.kcue.or.kr/>)나 EBSi(<http://www.ebsi.co.kr>) 진학상담실에서도 대학교별 입학전형계획이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학정보는 총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1. 대학입학 진학 정보
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및 준비
3.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4. 대입 정시모집 지원 전략



‘19금’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

정책기획관 임 병 구



교육과 정치를 자주 떼놓는 이유는 정치 쪽 책임이 먼저다.

선생님들에게 가정을 방문해 유신을 홍보하러던 시절에는 정치가 교육을 종처럼 부렸다. 이번 총선 날씨가 하필 4월 13일! 1987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최고 정치권력을 직선으로 뽑자는 개헌 요구를 외면했다. 이름하야 ‘4·13호헌’ 조치를 단행하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정치권력을 의식해 호헌지지를 표명한 교육계 인사들이 있었고 똑같은 논리로 반대 의견이 격렬했다. 정치적 중립은 어느 쪽에서 보든 불가능했다. 정치가 교육을 뒤흔들면 쓸림 현상은 필연이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흔들어 대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추가 이동한다.

교과서 국정화는 정치 이슈이자 교육 문제다. 교사는 물론 학생 의견이 분출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교육문제로 보든 정치적 저항으로 보든 제일 큰 이해당사자는 학생이다. 소수의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은 4.19를 배웠고 배운 바를 따르자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지나던 어른들은 혀를 차기도 했고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학생들이나 행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수도 있는 사건에 교육은 민감하게 대응해야 했다. 교육적으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라서 특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이 보살펴야 한다.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봐도 될 공연이나 영상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제한 등이 ‘18~19세’를 기준으로 나뉜다.

다시 정치의 계절이 왔다. ‘19세’ 선거권 제한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은 처분만 바라고 있는 처지다. 교실에서 정치이슈를 거론하는 일은 여전히 금기라서 조심스럽다. 정치에서 교육에 주문하는 사안은 때론 상반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와 위안부 관련 협상 과정이 정치 현안이다. 정치는 교육에 독도영유권 교육을 주문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까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독도 문제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가르칠 수는 없다. 자칫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장으로 기울 우려가 있어서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는 결이 다르다. 최근의 ‘불가역적 합의’에 대해 거론하려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관련 합의는 독도처럼 민족적 관점으로 일치되어 있지 않다. 외교에서 거둔 성과라고 두둔하면 정치적으로 한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 된다.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의 피맺힌 한을 기억하는 일조차 정치적으로는 편향으로 취급받는다. 독도와 위안부 합의는 교실에서 아이러니가 되어 나타난다. 두 현안을 가르치고 배우려면 정치 맥락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야 한다.

매체가 발달해서 19금은 학교의 통제권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독서와 논술, 토론 교육은 정치적 19금의 경계를 무너뜨려 왔다. 학생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의견을 형성한다. 이명박 정부의 ‘어린지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의견충이 대두했다. 자신들에게 닥칠 문제였기에 정치적 반대자가 되어 응집할 수 있었다. 19세가 되지 않았어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 민원으로 표출한다. 두발 자율을 정치 갈등 이슈로 의제화 했던 과정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성역처럼 여겨졌던 18~19금은 은밀한 공간에서는 이미 해제되었다. 어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18~19금을 붙들고 있다. 실상 어른들이 지키고 싶은 19금 영역은 정치에만 남아 있는 지도 모른다.

영화 귀향은 15세 이상이면 볼 수 있다. 14살 어린 소녀가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갔고,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여전히 어른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19세가 되지 못한 이들의 분노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전히 정치는 교육을 좌우하는 상수다. 19금 세대의 정치적 질문에 침묵하고 회피하면서 교육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맞지 않겠습니다



함께

미리 알고 먼저 준비하자

주요대학초청 상설 대학입학설명회



4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시교육청 대회의실	시교육청 대회의실	부평구청 대강당	시교육청 대회의실		
09:00 ~ 10:00	특강(진학총괄-이덕한)	서울과기대	특강(대입기본-송우중)	특강(학과-정원)	중간고사(전) 진학담당자 워크숍	
10:00 ~ 11:00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카이스트	해군사관학교		
11:00 ~ 12:00		경희대	지스트	간호사관학교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인천대	고3 EBS 설명회	디지스트	특강(학생부종합-박종학)		
14:00 ~ 15:00			유니스트	육군사관학교		
15:00 ~ 16:00	특강(대입종합-송선용)		포스텍	공군사관학교		
16:00 ~ 17:00			특강(대입종합-송선용)	육군전로특강		
17:00 ~ 18:00						

5월	7일	14일	21일	28일	
			송도 글로벌대학	시교육청 대회의실	
09:00 ~ 10:00	중간고사	석가탄신일	특강(진학총괄-이덕한)	특강(학생부종합-박종학)	
10:00 ~ 11:00			고려대	가천대	
11:00 ~ 12:00			연세대	서울과기대	
12:00 ~ 13:00			점식시간		
13:00 ~ 14:00			송도캠퍼스(외국대학)	서울여대	
14:00 ~ 15:00			서울대	숙명여대	
15:00 ~ 16:00				항공대	
16:00 ~ 17:00			특강(주요대학-송우중)	동국대 경주캠	
17:00 ~ 18:00			(설명회 후 컨설팅)		

6월	4일	11일	18일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	시교육청 대회의실	시교육청 대회의실	시교육청 402호	
09:00 ~ 10:00	한성대	한양대	특강(합격사례-강대수)	특강(학습법-이영남)	
10:00 ~ 11:00	국민대	중앙대	대진대	나사렛대, 순천향대	
11:00 ~ 12:00	송실대	서강대	동덕여대	한국산업기술대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가톨릭대	한국외대	연세대(원주)	대전대(이후 컨설팅)	
14:00 ~ 15:00	성결대	성균관대	상명대(서울)	성공회대	
15:00 ~ 16:00	단국대	이화여대	동국대	한세대	
16:00 ~ 17:00	한동대	한국교원대	경기대	원광대	
17:00 ~ 18:00	서울시립대	경인교대	성신여대	특강(자녀지도-정준교)	

주관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이후 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